

##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 북한문학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전영선(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1. 서론

이 글은 최근까지 진행된 북한문학 연구 과정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문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문학 연구의 쟁점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축적된 북한 연구 역량을 평가하고 연구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심도 깊은 북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북한문학 연구는 여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하였지만 그 동안 양적인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분단 이후 냉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학문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북한이 연구대상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북한문학도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북한문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였다. 냉전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북한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1988년으로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

\* 이 논문은 ‘2004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북한대학원대학교, 2004. 9. 17)’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발표 당시 토론을 맡아 주셨던 김성수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려지면서 북한문학 연구는 문학 연구의 주요 테마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의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북한문학 연구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고 객관적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이전의 단순한 소개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북한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괄적인 소개와 남북의 통합문학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제한된 연구자들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북한문학 연구의 출발이 당국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고, 북방정책을 비롯하여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가 사회분위기가 냉각되면서 다시 시들해지는 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의 재야 주도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여파로 한때 인기가 있었으나, 그 이후 북한 핵위기로 인한 긴장상태에 묻혀 금세 시들해지”<sup>1)</sup>고 마는 현상은 “역사적인 남북회담의 성공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로 북한 문화예술 논의가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된 2000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1995년 이후 한동안 논의가 소강상태에 빠졌던 북한문학 연구열기가 자체의 논쟁적 문제제기나 내재적인 이론의 진전 없이 아연 활기를 띠다가 불과 2~3년 만에 소강상태로 접어든 작금의 실상이 그 증거라 하겠다”<sup>2)</sup>는 데 대하여 공감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문학 연구를 위한 일부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북한 연구 전반에 걸친 진전을 이루었고, 전문가들의 공통 연구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문학 연구는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질적인 면에

1)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 『분단반세기 북한연구사』, 북한연구학회 역음(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410쪽.

2) 김성수, “북한문학·통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324~347쪽 참조.

서 심도 깊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문학사 서술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러 권의 북한문학사가 나올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좌익계열의 문단활동이 중심이며, 1970년대 이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소개와 통일문학을 위한 제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 결과 북한문학 연구가 짧은 시기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반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문학 연구가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문학 연구 인프라의 열악함과도 관계가 있으며, 북한문학은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만이 존재하기에 문학 연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춘향의 실존여부, 최초의 번역시집, 작품간의 영향관계나 선행 문제) 연구가 북한문학 연구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문학 연구가 연구자들의 전향적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북한문학은 그 자체로서 다른 뿌리에서 생성된 관점을 갖고 있기에 북한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식 문학관, 예술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없는 연구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후기적 양태, 그것도 정통 사회주의의 문학도 아닌, 체제를 위하여 왜곡된 문학, 정치를 비판하기보다는 정치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문학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1970년대 이전까지의 소모적이면서도 자기복제적인 연구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문학 연구 현황과 전개 양상에 맞추어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문학 연구에서 제기되어야 할 쟁점을 제시하여 북한문학 연구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

### 1) 북한문학 연구 경과

본격적인 의미에서 북한문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문학에 대한 소개가 있었지만 학문적 영역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연구가 북한의 실정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문학의 변질’, ‘문학부재’, ‘예술인들의 비극’ 등으로서 문학의 종말이나 문학성의 해체, 작가주의 상실이라는 ‘문학 아닌 문학’으로서 북한문학의 ‘실상’을 고발하는 수준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었다.

북한문학 연구의 출발이 된 것도 연구자의 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연하게 각 분야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sup>3)</sup> 이후 북한문학 연구는 1988년 7월의 이른바 ‘7·7선언’을 통해 대부분의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졌고, 이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조치는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 연구에 대한 폭을 넓혀주었고, 자연스럽게 월북 이후의 행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연구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월·납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는 1920, 1930년대 좌익계열의 문학을 연구하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월북 이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북한 문학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냉전구도에서 벗어나기

3) 북한문학 장르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서로는 1981년으로 국통일원에서 간행한 『북한의 문화예술』이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홍기삼, 신상웅, 김윤식, 선우희 등이 연구에 참여하여 북한의 시,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북한문화 각 장르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다.

시작하면서 남북관계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북한 바로 알기’를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접근 노력이 전개되면서 북한문학 작품이나 특성을 소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남북관계가 변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사회적 관심에 반영하여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끌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월북문인에 대한 연구가 북한문학 연구의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북한문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였다. 무엇보다 1960년대 후반, 1968년을 기점으로 진행된 북한의 문예혁명 이후의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김정일의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지도가 시작되었던 시기로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이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다시 ‘새로운 혁명예술’로 ‘새로운’이 추가되었고, 이는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하고도 ‘철저히’ 세우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작가예술인들은 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충직한 문예전사가 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sup>4)</sup> 짧은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전개된 문학예술계에 대한 현지지도는 그만큼 북한문학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문학예술의 변화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해방공간 이후의 북한문학에 대한 접근에서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요구하게 한다. 즉 북한문학을 나름대로의 문학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서 북한문학 연구의 방향, 나아가 통일

4)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1964. 12. 10);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1966. 2. 7);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67. 5. 30);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1967. 7. 3),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1967. 8. 16);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1968. 10. 8).

문학에 대한 논리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월북 문인들이 숙청된 이후의 북한문학에 대한 합의는 연구자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북문인에 대한 월북 이후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전과의 차이는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학의 종말’이나 ‘문학부재’에서 나아가 ‘세밀하게 북한문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 교정’이나 ‘북한문학과 정치의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문학의 특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한 문학의 총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북한 문학의 장르별(시, 희곡, 소설)로 특성을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작품과 작가 연구도 진행되어 조기천의 「백두산」, 조명희, 이기영, 이용악 등에 대한 연구가 나왔으며, 주체사상과 문학에 대한 모색, 주체문예이론에 대한 접근 노력이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르면서 북한문학 연구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문학사 서술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체제 경쟁적 차원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움직임은 북한문학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작가 연구에서는 이태준, 박태원, 한설야, 이기영 등 KAPF를 중심으로 한 인물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89년의 신원문화사와 고려원에서 발간된 ‘북한문학’ 테마 시리즈는

북한문학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라는 의미가 있다.

북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표지면도 확대되어 북한문학 연구가 문학 전문학술지에서 북한 연구와 관련된 지면으로 넓혀졌다. 이전에도 북한문학의 발표지면이 사회과학이나 정치학 관련 학술지에 실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때는 개략적인 현황소개에 한정되었으며, 본격적인 북한문학에 대한 모색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구 성과의 발표보다는 북한문학에 대한 소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발표지면의 확대는 북한 연구와 문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일변도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본격적인 북한문학의 논의이기보다는 북한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학을 통해 접근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3에 이르면서 북한 대학원에서 문학 연구로 학위를 받기에 이른다.<sup>5)</sup>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야 해방공간에 머물었던 북한문학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연구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앞서 1980년대의 연구가 주로 해방공간을 중심으로 1950년대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6·25' 이후의 연구로 확대되면서 북한문학 연구는 광복부터 연구자들의 연구시점에 이르는 통합문학사의 서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6)</sup> 북한 연구의 대상 시기가 '6·25' 이후로 확대되면서 주체문예 이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 이론에 의한 북한문학의 접근, 즉 북한문학의 내적 논리에 의한 이론바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문학의 모색이 이루어졌다.<sup>7)</sup> 북한문학을 이

5) 양지연, “유일지도체계의 성립과 문학예술의 역할—1967년 북한문학예술계의 반종파 투쟁을 중심으로—”(경남대, 2003)와 우문숙, “북한의 ‘선군혁명 문학’을 통해 본 선군정치의 체제유지 기능에 관한 연구”(경남대, 2003)가 있다.

6)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나남, 1995); 김윤식, 『북한문학사론』(새미, 1996).

7) 1990년대 이러한 접근으로는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화 혁명적 대작

해함에 있어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김재용은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문학이 당의 정책과 교시에 의해 규정지어지며, 이 규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발전한다는 북한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연할 것 같은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문학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통해 통일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문학 연구는 연구 대상 시기를 1990년대까지 끌어올렸으며, 시대구분에 있어 북한의 문학사 구분을 수용하기 시작한다.<sup>8)</sup>

2000년에 이르면서 북한문학 연구는 1990년대와는 구별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문학을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 남한이나 북한 중심이 아닌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도는 2000년 이후 북한문학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문학사 논의에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의 상황에서 문학사의 의미를 추적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문학사’를 북한의 문학사로서 일관된 역사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sup>9)</sup>

---

장편 창작방법 논쟁-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논쟁·3”, 『한길문학』(1992. 여름); 김동훈, “전후문학의 도식주의 논쟁—1950년대 북한 문예비 평상의 쟁점”, 『문학과논리』 3(1993. 6)과 김재용의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문학과지성사, 1994);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나남, 1995), 신형기, 『북한 소설의 이해』(실천문학사, 1996) 등이 있다.

- 8) 이러한 연구로는 김재용, 『민족문학 운동의 역사와 이론2』(한길사, 1996); 김재용, “김일성 사후의 북한문학—90년대 중반 북한소설의 새로운 경향과 그 의미”, 『문예중앙』(1996. 여름); 신형기·김화영, “천리마대고조기’의 북한문학”, 『경성대 논문집』(1998. 2) 등이 있다.
- 9) 그동안 김성수, 『통일의 문학의 비평논리』(서울: 책세상, 2001);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신형기·오성호의 『북한문학사』(서울: 평민사, 2000).

문학사에 대한 서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로 신형기·오성호의 『북한문학사』(평민사, 2000)가 있다. 신형기·오성호의 『북한문학사』는 북한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북한문학의 발전과정을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이 책은 남한에서 쓴 첫 북한문학사이다’는 표현에 걸맞게 북한문학사의 전개를 북한의 역사구분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변화된 양상을 일관된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북한문학사』가 북한문학 연구의 의의를 갖는 것은 통일문학사의 관점에서 북한문학을 흡수하거나 선택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문학의 전개 과정을 그려냈다는 점인데, 이는 역사적인 일관성을 얻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남북문학을 아우르는 발전적 논리로서 논리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남북 문학의 객관적 접근으로 눈에 띄는 것은 김재용의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이다.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은 북한문학에 대한 접근에서 남과 북의 자기 중심적인 획일화된 입장을 지양하고 정치일원주의에서 벗어나 화해와 교류의 정신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북한문학을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다채로운 색깔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북한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다양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sup>10)</sup>

2001년에 이르면서 노귀남, 김윤영, 박영정, 우문숙 등을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 혹은 선군혁명문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문학 연구의 시차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문학사에 시문학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과 북한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조명 작업이 이루어 졌다. 김경숙의 『북한현대시사』는 북한 시 연구에서 있어서 장르론적 접근으로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북한현대시사』에서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인데, 김경숙은 이

10)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평출판사, 2000).

시대를 ‘제1시기(1945~1949)’, ‘제2시기(1949~1953)’, ‘제3시기(1953~1955)’, ‘제4시기(1956~1958)’, ‘1958년 이후’로 5단계로 구분하였다. ‘6·25전쟁’을 구분하고 ‘전후복구건설’ 시기를 1955년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까지로 시기가 제한되어 기준의 시대 구분으로 사용되어 왔던 시기구분을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판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sup>11)</sup>

김종희는 『북한문학의 이해2』에서 북한문학을 세부 갈래로서 시, 소설, 비평, 연극, 아동문학 등의 장르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를 검토하고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북한문학을 정리하면서, 주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문학사의 핵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천, 백인준, 김철과 같은 인물 연구를 통하여 북한문학 연구의 폭을 넓혔다.<sup>12)</sup>

2000년 이후 북한문학 연구의 한 특징은 북한문학 연구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광복 50년이었던 1995년을 맞이하여 북한문학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남북한 통합문화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통일문학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일환으로서 북한문학 연구사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앞서 1995년이 분단 반세기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북한문학 자체를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2000년대의 북한문화사 검토는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로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을 점검하는 일이 북한문학 연구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sup>13)</sup>이라는 접근이다. 즉 북한문

11) 김경숙, 『북한현대시사』(서울: 태학사, 2004).

12) 김종희, 『북한문학의 이해2』(서울: 청동거울, 2002).

13) 남송우,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시문학을 중심으로”, 『통일대비 한국문학의 과제(2)』(한국문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101쪽.

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반성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sup>14)</sup>

## 2) 북한문학 연구사 검토와 북한문학 연구의 특징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북한문학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축적된 북한문학 연구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sup>15)</sup> 문학사 연구에서 주목되는 연구 성과로는 박상천과 김성수가 있다.

박상천은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서 북한문학 연구의 관점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1980년 해금을 전후한 시기의 ‘대립적·비판적 인식의 단계’이다. ‘대립적·비판적 인식의 단

14) 김종회, “해방후 북한문학의 전개와 실증적 연구방향”, 김종회 편, 『북한문학의 이해』(서울: 청동거울, 1999), 13쪽.

15) 북한문학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홍창수, “남한문학사 서술양상과 북한문학 연구동향”, 최동호 편, 『남북한현대문학사』(서울: 나남출판, 1995);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태상 저, 『북한문학의 현상』(깊은샘, 1999);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북한연구학회(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박상천,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 4집(서울: 한국민족학회, 2000. 2); 김성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 3집(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0); 남송우,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시문학을 중심으로”, 『통일 대비 한국문학의 과제(2)』(한국문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등이 있다. 그 동안 진행된 북한문학 연구 또는 북한문학사의 접근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문화 그 자체의 맥락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논리를 검색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문학과의 상관성 아래 문학을 통하여 제시되는 민족적 문화통합의 장래를 설정하는 것이다. 홍창수의 “남한문학사 서술양상과 북한문학 연구동향”은 해방이후 전개된 남한 문학사의 사적인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그 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문학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예비적 점검과 문제제기의 성격의 논문이다. 박태상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시 남한 내의 북한 연구 현황과 북한문학 연구의 방향을 제기한 연구로서 남한에 소개된 북한문학 텍스트 소개와 북한문학 분석의 규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계'에서는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연구자들은 북한문학을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립적 인식과 비판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의 '객관적 실상 연구의 단계'로 북한에 대한 상당한 양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실상을 소개하는 시기로 주로 북한문학을 통시적으로 개괄하고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객관적 실상 연구의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북한문학을 소개함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극복하려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론 탐구와 통일문학·민족문학 모색 단계'로 북한문학 연구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방면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김성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북한문학 연구 현황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1980년대 말의 월북 작가 해금과 함께 시작된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북한문학에 대한 긍정적 소개 차원의 단계이다. 두 번째는 1994년 남북합의서 체결을 전후한 시기로 북한문학에 대한 선형적으로 긍정·부정을 내세우지 않고 내재적인 접근방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시기이다. 세 번째는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초창기의 소개 차원이나 성급한 일반화의 수준을 넘어 이론과 자료, 상호 보완되는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단계로 보았다.

두 연구자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북한문학 연구는 시간의 상당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문학연구의 내적 발전구도를 갖지 못하고 간헐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나 2000년에 이르러서 초기 이념적 대립의 자세를 극복하고 객관적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하여 방법론 정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문학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여전히 광복 이후부터 6·25에 이르는 해방공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는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문학 연구의 출발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 연구 초기의 북한문학 연구가 카프를 비롯한 월북 작가 연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월북 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거나 희생되었다는 인식으로 월북 이후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기에 월북 문인의 월북 이후 행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창작 세계가 강요되었거나 북한정권에 의해 변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월북 이후의 작품을 무시하거나 이전의 창작활동과 연계가 있는 작품만에 의미를 두자는 입장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남북문학사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모색 차원이다.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선군혁명문학에 대한 연구가 나왔지만 남북 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광복 직후의 전개 양상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는 남북문학이 ‘순수’와 ‘정치’를 표명하였지만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주변적 존재였고, 상호 배제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유사한 선택, 그래서 남북한이 표방하는 바가 이념적으로 대립적이었다는 공통의 모형을 갖고 있기<sup>16)</sup>에 이념적 대립의 출발점에서 문학사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 해방 공간에 대한 고민은 북한문학 연구의 시기적 제한성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점점 찾기 위한 출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론보다는 총론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주요 인물이나 주요 작품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연구 범위는 제한되었다. 작가연구로는 이기영, 한설야, 최명익, 박태원, 황건, 임화, 김남천, 안함광 등이 대상이었으며, 조기천, 천세봉, 박세영, 오영재 등으로 확대된 것도 최근의 일

---

16) 신형기, “남북한 문학과 ‘정치의 심미화’”, 김 철 외, 『문학속의 파시즘』(서울: 삼인, 2001) 참조.

이다. 작품의 경우에도 「피바다」나 「백두산」 같은 작품으로 제한되었다. 많은 경우 북한문학 연구는 문학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이란 시대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셋째, 접근 방법에서는 상호 비교론적 접근에서 내재적 접근으로 전개되었다. 광복 이후 북한문학은 우리의 문학이면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문학에 대한 접근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던 1980년대까지와 달리 1990년대 이르면서 객관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 3. 북한문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논의의 과제

#### 1) 북한문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

##### (1) 통합문학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의 통합 문학사에 대한 필요성이다. 통일문학사는 남북한 문학사의 순차적 배열이 아니라 ‘통일된 문학사’가 아니라 통일의 관점에서 문학사를 해석 하려는 움직임이며, 문학적 가치의 계승과 전개라는 문학 내면적 접근이다. 문학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해석의 문제로서 문학사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문학사 내지 통합문학사는 하나의 전일화된 문학사, 전형적인 문학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북문학의 논의를 위하여 문학사 서술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상호주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학사는 문학사 전체를 나열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 선택에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문학사의 기준은 미학관, 역사적 통

찰력, 철학적 사고를 포함한다. 문학사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시대에 창작된 작품의 나열이 아닌 현재적 의미 혹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체계화하고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통합문학사 서술에 있어 기술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 되지는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2) 내재적, 객관적 접근의 필요성

초기 북한문학 연구에서는 통합문학사의 방향은 남한 문학사를 중심으로 북한문학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즉 북한문학은 남한 문학의 일부로서 남한 문학사의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문학사에 이르는 문학의 입장이었다. 이는 북한문학사에서 남한 문학을 ‘혁명전통의 영향을 받은 문학’으로 규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학 연구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재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문학이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유일한 창작방식과 정통문학의 흐름’만을 인정하며, 이러한 흐름과 배치되는 일체의 문학사도 인정하지 못하는 비타협적인 문학임을 인정하고 북한문학의 특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내재적 접근법 내지는 내재-비판적 접근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것이든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sup>17)</sup>

남북문학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태도는 북한의 문학사 서술 태도 변화와 연관된다. 혁명문학에 문학의 기원을 두면

17) 박태상, “북한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북한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7), 47쪽. “북한문학의 올바른 이해를 이해하는 내재적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한 비판적 인식에 바탕한 해석과 평가를 의미한다.”

서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조선문학개관』Ⅱ에 이르면서 항일혁명투쟁(1926. 10~1945. 8) 시기 문학을 ‘①항일혁명문학’과 ‘②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으로 구분하면서 좌익계열의 문학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기에 이른다. ‘항일 혁명문학’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학으로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나 창작지도 한 작품들이 주요한 문학적 성과로 평가하였다.<sup>18)</sup>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은 남측에서 발생한 좌익계열의 문학적 평가를 기술한 것으로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같은 시기에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 투쟁시기 남한의 문학예술에 대한 규정으로서 문학예술 분야에서 이기영 「민며느리」, 「원보」, 「고향」, 조명희 「아들의 마음」, 「락동강」, 한설야 「황혼」, 현진건 「무영탑」, 「축치상지」, 홍명희 「림꺽정」, 강경애 「인간문제」 등의 소설 문학의 성과와 채

18) 항일혁명 문학은 다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직으로부터 명월구 회의까지(1926. 10~1931. 12)’와 ‘항일혁명투쟁의 시기: 항일유격대 창건~광복(1932. 초~1946. 8)’로 구분하면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직으로부터 명월구회의까지(1926. 10~1931. 12)’의 주요 문학예술 분야의 성과로는 「혁명가」(가요), 「사향가」(가요), 「소년군가」(가요), 「아동단가」(가요) 등의 혁명적 시가가 창작되었으며, 불후의 고전적 명작인 「조선의 노래」, 김혁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20~30년대 투쟁의 길을 모색하는 작품인 불후의 고전적 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혁명연극), 「혈분만국회」(혁명연극), 「3인1당」(혁명연극), 혁명연극 「성황당」, 「딸에게서 온 편지」가 창작되었으며,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가 1930년 11월 오가자에서 첫 공연된 것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항일혁명투쟁의 시기: 항일유격대 창건~광복(1932. 초~1946. 8)’는 정치적으로 ‘주체적 혁명로선의 구현’이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문학예술과 관련하여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 「반일전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토별가」, 「파바다가」의 창작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연극으로 공연,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작을 꾹고 있다.

만식, 심훈, 리효석 등의 작품 창작 성과, 극문학에서 김영필의 「싸움」, 「불이야」, 송영의 회곡 창작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1991년부터 발간한 15권짜리 『조선문학사』 중 제9권(류만 저, 1995. 6)은 1926년부터 1945년까지 문학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선문학사』 8권과 9권, 두 권에서 다루고 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두 권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항일무장혁명 투쟁 시기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비롯한 진보적인 문학의 출발로부터 무산대중의 운명과 항거정신에 대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문제를 다룬 진보적 소설' 창작이 이루어지면서 북한문학의 형태가 완성된 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조선문학사』, 9권에서 언급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사회역사적 환경과 문학의 전개 상황을 요약하면, '항일 혁명투쟁의 영웅적 현실을 반영하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항일혁명문학이 창조, 발전된 한편 국내에서의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비롯한 진보적 문학과 여러 조류의 문학이 존재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진보적 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력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초기공산주의 운동 대열 안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종파분자들이 파벌싸움을 벌이면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었고, 민족주의 자들과 세력다툼만 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 동지가 혁명에 나서면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며 주체적 혁명노선을 제시하고 직접 항일무장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역사적인 광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문학은 근 20여 년 동안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비롯한 진보적인 문학과 기타 여러 문예조류

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양식의 작품이 창작되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19)</sup>

북한의 문학사 서술에서의 태도 변화와 최근 숙청되었던 카프계열의 문인에 대한 복원은 남북문학사에서 민족을 담론으로 하는 공통의 문학사 서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학사의 주류가 된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가령 시의 경우 서정성이 중심으로 서정성이 드러나는 작품이나 풍경시 등에서 남북 문학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남북 문학의 공통적인 인자로서 서정성이 있는 작품을 이삭줍기식으로 문학사를 채워가는 것은 본격적인 남북문학사 서술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문학 연구는 남북한 문학사 서술의 시각차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에 입각한 철저한 실증적 자료의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문학 연구가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든, 내재적 방법으로 접근하든 접근 방법을 막론하고 전제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극복되기는 하였지만 원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자료의 출처는 대개 두 가지 루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정보수집기관에 의해 수집되었거나 정보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수집하거나 들여온 자료’들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 있는 문제이다.<sup>20)</sup>

19) 『조선문학사』, 9권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양양되면서 일제의 폭압이 가중된 시기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두를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문학사에서 카프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지면서 문학사에 기술된 것은 카프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이후 시기에 나온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설주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많은 작품에는 로동계급을 포함한 무산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김정일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자료의 문제는 북한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소재 고전 자료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전 자료에 대한 충분한 접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의미를 적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북한문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무엇보다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라는 원론적 상황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로 북한문학 연구는 북한문학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특정한 시대, 혹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문학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sup>21)</sup>

### (3) 통합문학사 차원의 통합적 접근

북한문학 연구의 최종적 목적지는 개별적인 작품의 가치와 자리매김을 통해 남북한의 통합문학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문학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한의 문학사를 병렬적으로 배열할 것이 아니라 남북 문학사를 관통하는 논리로 일관되어야 한다

---

20) 박태상, “북한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북한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7), 46쪽.

21) 북한문학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잡지라고 해야 100페이지 이내의 『조선 문학』이나 『통일문학』 정도이거나 『문학예술년감』에 실리는 작품이 대표적 인데, 이를 잡지에 실리는 작품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면모를 살피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잡지에 수록되는 작품의 대표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문학 작품을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2003년 11월 남북한 문인의 대표작품이 수록된 ‘통일문학전집’이 발간되었다. 통일문학전집은 남한 작가가 746명과 북한 작가 258명의 작품 5,378편(남한 4,406편, 북한 972편)이 실렸으며, 시와 소설, 회곡, 평론 장르를 망라한 개별 작품과 해제를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40만여 장에 달한다. 통일문학 전집은 북한문학의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표현물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통합문학사의 논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제기한 ‘민족의 논리’나 ‘통일의 논리’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나 시나리오가 없었으며, 일관된 방향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남북한 통합문학사의 이념은 크게 리얼리즘, 민족주의, 통일문학의 논리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일문학사 서술에 있어 서술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논거나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리얼리즘은 근대문학의 연장에서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통합문학사를 서술하려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었으며, 민족주의와 통일문학은 통일문학사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민족주의 담론은 남북한 문학, 문화의 차원에서 이념으로서 접근하자는 것인 반면, 통일문학은 남북한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 이를 공통분모로 하자는 것이었다.

권영민은 북한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한의 순수주의와 북한의 이념주의의 상호배타적 시각의 극복을 위한 관점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남북문학의 통합원리로서 문학정신을 강조하였고, 김윤식은 한국 근대문학사를 관통하는 근대성의 원리로서 남북 문학사의 통합을 주장하였다.<sup>22)</sup> 근대성의 개념 자체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차이가 있으며, 현대성의 문제는 현대문학사의 논쟁적 주제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근대의 개념은 19세기 말로 파악하면서 ‘반봉건’과 ‘반침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대를 1926년의 ‘트·드의 결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남북의 인식과 구분에서 보이는 차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최동호는 통일문학사 서술의 논리로서 ①포괄의 논리, ②사설의 논

22) 권영민, “총론; 김윤식,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문예이론”,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서울: 을유문화사, 1986) 참조.

리, ③근대성 극복의 논리, ④민족문학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민족 주체문학의 확립, 세계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민족문학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포괄의 논리'는 풍부하고 발전적 서술이 가능하도록 남북한 문학사를 포괄적 입장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며, '사실의 논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는 것이다. '근대성 극복의 논리'는 우리 문학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온 근대의 논의에 치우치지 말고 현대, 초현대로 진행하는 시대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민족문학의 논리'는 민족주체의 문학관을 정립하되 세계문학의 연관 속에서 민족문학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김재용은 한국 근대문학의 관점에서 북한문학을 검토해야 하며, 털 냉전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 문학의 통합에서 서울 중심주의나 평양중심주의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남북의 문학은 리얼리즘의 본래적인 의미에 입각하여 접근하되, '전반적 문예정책 내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의 고려', '소련문학의 영향 검토', '역사주의적 시각에서 북한문학 검토',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4)</sup>

김성수는 통합문학사 기술을 위한 공통분모로서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을 강조하였다. 리얼리즘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전개 과정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리얼리즘 문학이 주된 흐름이었고, 분단을 극복하는 예술방법도 리얼리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논의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그 원칙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되 시대적 본질을 깨뚫어 파악하는 리얼리즘이어야 한다는 것

23)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서설", 최동호 편, 『남북한현대문학사』(나남출판, 1995).

24)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11~15쪽.

이다.<sup>25)</sup>

#### (4)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공감

폐쇄적, 자기중심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적 입장에서 북한문학에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는 북한문학 연구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이나 민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은 상대적이었다. 정치적 영향이 커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의 확대 해석이나 반제국주의의 정치적 담론에서 이제는 민족주의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서 자유로워지자는 입장에서 민족문학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문학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서 민족주의’로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문학에 기초한 문학으로서 계층적으로 인민대중을 지향한다. 따라서 반동적인 것까지 민족 문학의 범주에 넣기를 거부하고 진보적인 것을 수용하는 계급적 성격이 분명하다.<sup>26)</sup>

이런 점에서 “남북한 문학이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묻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면서 생겨난 남한 문학과 북한문학이 분단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와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과 상상적 관계를 세우고 고정하는 것이 문학이 해온 역할 가운데 하나이고, 이런 점에서 문학은 이데올로기의 형태라고 할 때, 분단의 산물인 남북한 문학이 남북을 가른 분단 이데올로기를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 적었다”<sup>27)</sup>는 신형기의 지적은 막연한 구호로서 민족이 아닌 구체적이며, 개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문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상대 문화에 대하여

25)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문학』(서울: 책세상, 2001).

26)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27)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서울: 삼인, 2003. 2), 171~172쪽.

수용을 저울질하는 “자기중심적 통합주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과 적대감을 강화시켜 분단고착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국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남북한이 역전되어 남한의 우의가 느껴지면서 그동안 북한이 범했던 이 자기중심주의가 모습을 달리하여 재현되기 시작”<sup>28)</sup>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자기중심적 통합의 과정을 극복하고 동북아 체제 혹은 세계사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문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

### (1) 북한문학의 정치성: 문학으로서 정치, 정치로서의 문학읽기

북한문학을 접근하는 연구자들의 태도는 북한문학에서 ‘북한’과 ‘문학’이라는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과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초점을 맞춘 경우, 북한문학은 북한 종교연구나 북한 인권 연구와 등과 같이 문학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접근이다. 최근 들어 북한을 전공한 이들에 의한 북한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학에 초점을 두고 북한을 접근하는 태도이다. 이 경우 북한문학은 민족문학, 통일문학의 하위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하나의 민족문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쪽의 문학을 이해하고 하나의 문학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이다.

북한문학 연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문학관과 예술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문학이 갖는 기본적인 입장과 문학관의 차이는 해방이후 치열한 논쟁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된 것이었다.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의 출발 속에서 시작된 현대문학은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의 체제가 정립하면서 남측은 남측대로

---

28)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사, 2000), 23쪽.

순수문학 논쟁을 비롯한 치열한 논쟁과정을 거쳤고, 북측은 북측대로 도식주의와 수정주의의 논쟁, 리얼리즘 발생 논쟁, 전형창조론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논쟁을 거쳐 하나의 관점으로 정립되었다.<sup>29)</sup> 이 상황에서 북한문학의 논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사회적으로나 문학연구자의 입장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문학을 인정하는 것은 문학 연구의 곧 혁명문학을 수용하는 것이며, 이 혁명문학의 수용은 수령형상문학을 비롯하여 북한식으로 재해석된 고전문학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문학에서 수령관이나 민족문학, 혁명문학에 대한 부분은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수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여 피해간다면 지속적으로 북한문학 연구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문학의 세부적 검토와 함께 남북 문학의 토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2) 통합문학사 서술 논리

남북한의 문학사를 전개할 수 있는 서술 논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문학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를 떤 기준 문학사 통합에서 남한 중심주의에 따른 흡수통합이나 북한을 별도로 서술하는 형식적 통합은 무의미하다”<sup>30)</sup>는 논리는 당연한 일이다.

북한 문학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나 비판과 같은 각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관, 문학사서술, 문학과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다. 그러나 문학관에 대한 논쟁은 남북한에서 모두 논쟁을 거쳐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민족문학은 식민지 잔재청산을 우선하는 좌파와 순수문학, 전통지향을 강조하는 우파로 구분되었다. 좌파문학은 인민성을 우선하는

29) 이에 대해서는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 연구』(서울: 역락, 2004) 참조.

30) 김성수, 『통일의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체세상, 2001), 44쪽.

이른바 문건(조선문학건설본부)파와 계급성을 강조하는 문맹(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사이의 갈등을 거치면서 문학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정리되었다. 우파의 경우에도 문학의 정신으로 강조하는 순수 문학의 강조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작용된 것이었다. 좌우의 논쟁은 자기 문학적 논리를 강화시켜 가면서 문학 자체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상호 배제시켜 왔었다.<sup>31)</sup>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민족이라는 의미 속에 감추어진 민족이라는 추상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통합문학사 서술 논리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사회주의 문학과 주체사실주의 연관성

사회주의 문학과 주체사실주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문학적 주류로 인정하면서도 주체사실주의를 문학적 일반화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1988년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북한 문학연구를 촉발시켰던 것은 북한 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확장이라기보다는 1920, 1930년대 좌익계열 문학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 북한 문학 연구의 출발이 월북 작가의 월북 이후의 행적에 맞추어지면서, 북한문학 연구도 월북작가들의 월북이후의 연대기적 행적이나 작품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이나 문학관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문학 연구는 “우리의 안목으로 북한의 현대문학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sup>32)</sup>는 결론이나 “우선 북한문학의 실체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sup>33)</sup>는 주장이 1990년대까지 유용하게 작동되었다.

31) 민족이라는 담론이 가는 체제 수호적 논리와 남북한에 적용된 민족우상화 논리는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서울: 삼인, 2003) 참고.

32)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Ⅱ』(서울: 고려원, 1990), 13쪽.

33) 권영민 외, 『북한의 문학』(서울: 을유문화사, 1989), 15쪽.

북한연구자들의 대부분이 1920, 1930년대 카포계열의 작가연구에서 출발하였기에 월북 작가들의 사회주의 문학적 성과와 월북 이후에 발표한 작품 사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북한의 혁명문학이 그 기원은 항일무장혁명 투쟁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문학적 연속성으로 국문학사 내지는 통합문학사에서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북한의 문학사 서술은 유일사상체계의 관점에서 항일무장혁명투쟁을 유일한 역사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이론서들은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에 영도되지 못한 봉건적·비공산주의적 문예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까지도 혁명전통으로 계승할 것을 거부하고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이라고 못 박는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김일성이 혁명이력에 국한된다.”<sup>34)</sup> 항일혁명 전통이 유일하게 인정되듯이 문학사 서술이나 문학창작 방법에서도 유일하게 옳은 방법은 주체사실주의 하나로 규정된다. 정치적이라고 하여서 이 부분을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면 북한문학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논의되는 이 시점까지 북한문학 연구가 1970년대 주체사실주의에 한계를 둔다면, 북한문학 연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4) 문학과 문화의 경계

문화의 관점으로 북한문학을 보아야 한다. 문학을 문화의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문학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문학을 문학 작품이나 작가의 인식구조나 작가적 세계관으로 인식하는 경우 접근의 한계

---

34)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동국대출판부, 2003), 31쪽.

가 있다. 북한 문화의 영역 안에서 문학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 분야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척도로만 북한을 접근하려는 점은 북한문학 연구를 어렵게 한다. 북한에서 ‘文藝’는 ‘文化藝術’이 아닌 ‘文學藝術’이다. 북한에서 문학은 예술의 중심에 있다. 이처럼 문학이 중심인 이유는 문학을 통해 서사의 줄거리 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예술은 서사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원칙에 따라 문학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성격을 그려야 한다. 성격을 그리는 데 있어 핵심은 혁명화의 과정, 즉 일반인에서 혁명가로서 발전하는 모습, 변화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 영화, 연극, 가극과 같이 서사를 포함할 수 있는 장르는 물론이거니와 무용이나 가요에서도 인간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이 바로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로 살아가는 주체사회이기에 오로지 북한에서만 인민대중을 중심에 둔 예술작품이 건설될 수 있으며, 평범한 인민대중이 수령의 영도<sup>35)</sup>에 의해 주체적 인간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sup>36)</sup> 문학은 바로 이 서사를 만들어낸다.

35)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1982. 3. 31):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습니다.”

36) 주체사상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이지만 그 자체로 주인이 되지 못하며, 진보적 사상에 의하여 유도될 때 역사적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이익을 어떻게 반영하며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을 서로 다르게 된다. 노동계급의 선진적 혁명사상은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등의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되어 되어 왔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레닌에 의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고, 수령이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주체시대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문학에서 완성된 이야기를 다른 장르에서는 이를 해당 장르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이라고 해서 무용의 특성을 발휘한 작품보다는 문학적 주제를 어떻게 무용으로 옮길 것인가가 문제가 되며, 음악에서도 음악적 특성을 살리는 작품보다는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sup>37)</sup>

북한 문화예술은 개별 장르적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효율적 서사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로 기능이 강조된다. 즉 음악, 무용, 미술이 독립적 특성보다는 극적 분위기를 고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갈등을 표현하는 데 독창이 필요하면 독창을 사용하고, 합창이 필요하면 합창을 사용하며, 무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무용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음악이나 무용, 미술이 독립적인 장르보다는 가극이나 음악무용서사시 등의 종합공연이 중심이다.

중요한 문제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음악이나 무용의 장르적 특성을 살려나갈 필요가 없다. 청중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장면을 사용한다. 미술 역시 독립적인 회화로서 존재하지만 무대미술로서의 활용성이 강조되며, 무용 역시 특정 대목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작가나 예술인들 역시 작품에 대한 구분이 없다. 조선화 작품을 그리면서도 가극이나 연극 등의 무대미술을 담당하고, 아동영화의 배경을 그리는 것을 당연시한다. 북한의 공연단체들마다 작가, 음악가, 배우, 미술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작품 형상화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기 위해서

37)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은 여러 다양한 장르로 옮겨지기에 작품 제복만으로는 어느 장르에 속하는 지 알 수 없다. 「괴바다」의 경우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여러 ‘예술형식’으로 창작되어, 1969년에는 영화 「괴바다」, 1971년에는 혁명가극 「괴바다」, 1972년에는 장편소설로, 교향곡 「괴바다」, 가요 「괴바다」 등으로 창작되었다.

이다. 북한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음악무용서사시나 집단체조 공연이 가능한 것도 한 단체 안에 여러 장르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북한문학 연구의 쟁점은 문학과 문학 외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문학 외적인 요소란 음악, 미술, 무용, 영화 등의 예술장르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이다. 북한에서 문학은 독자적인 위치를 갖지 못한다. 북한에서 창작의 자유란 새로운 소재, 새로운 주제의 작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어진 주제 안에서 시냐 소설이냐의 장르 구분 없이, 한 편이냐 열 편이냐의 창작 편수 규제 없이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이 가야 할 길, 역할과 사명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작품은 이 주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한 편의 글을 발표하기 위해서도 다단계의 검열과 통제 속에서 당의 방침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문학사 구분이 철저하게 정치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 (5) 소련 문예사조의 도입과 영향의 문제

북한문학에서 소련문학의 영향과 남한에서의 서구문학의 영향 정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소련의 한반도 개입과 북한 정권 수립 당시 소련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 북한은 의심할 바 없이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에 따라 남북한은 각각 미군정과 소군정을 지나면서 국가건설 방향의 기초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결정되었다. 소련은 소련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인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련에 우호적인 한국독립정부의 수립’이라는 대한정책을 목표로 신탁통치에 침석하였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련에 우호적인 북

한 정권 수립에 착수하였다.<sup>38)</sup> 소련의 군정하에 북한의 정체성과 정통성도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이해되었다.

혁명적 문학, 예술 작품들에서 애국주의 사상은 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응호, 중국 인민과의 공동전선, 전 세계 무산 대중과의 전투적 단결 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혁명 문학, 예술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애국주의, 이는 바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다.<sup>39)</sup>

김일성의 정통성도 바로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 투쟁으로서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해방공간의 중요성은 3년이라는 짧은 시기에도 탈식민의 과제와 동시에 미·소 열강에 의한 분단을 막고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할 과제를 더 안은 시기”였다.<sup>40)</sup> 한국 현대사가 안고 있는 총체적 과제의 출발점이 된 시기이다. 북한에서의 소련군정 기간동안은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북한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학제간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 (6) 고전의 개념과 범주

한국문학사에 고전문학은 20세기 이전으로 규정되지만 북한에서는 그 시기가 1920년대 중반까지 적용된다. ‘고전문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전문학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고전문학을 창작기법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전의 시기를 근대 이후로까지 적용한 것이다. 고전문학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항일무장혁명 투쟁시기에 창작된 작품들도

38)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37~38쪽 참조.

39) 과학원출판사,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과 해방후 문학』(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28쪽.

40)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12쪽.

고전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조선구전문학개요』에 ‘항일혁명편’이 별도의 장으로 설정되었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구전문학에 대해 “김일성 동지를 형상한 백두산의 태양전설과 공산주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형상 한 백두광명전설을 비롯한 혁명설화와 인민송가, 혁명적인 군중놀이와 인민가요들로 풍부화된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구전문학”으로 정리하면서 전통 민요와 설화의 범주에 혁명설화, 혁명적 가요의 용어를 통하여 항일무장혁명 투쟁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1)</sup> 고전문학이면서도 현대문학(공산주의적 문학) 건설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 문제에 대해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해명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우리 인민들은 과거 계급사회에서 어렵게 살아왔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왔고, 이러한 인민들의 사상적 입장과 낭만적인 지향으로 문학예술에서 어둡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색조와 선율,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창조하였고, 이것이 부단히 발전되어 우수한 민족적 형식을 이루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옳게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 (7) 문학의 장르와 갈래, 그리고 북한식 문학용어

남북한의 문학예술 용어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학을 분류하는 큰 단위로서 ‘갈래’의 경우나 문학의 갈래로 규정한 ‘서정, 서사, 교술, 희곡’에서 교술의 개념 문제는 이미 국문학계의 논쟁이 되었지만 북한문학의 연구에서도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문학의 경우 ‘종류’, ‘형태’, ‘갈래’의 구분에 대한 용어나 북한문학에서 인정하는 송가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최근 북한문학에서 선보인 ‘운문소설’, ‘동물소설’ 등의 문학적 형태의

41) 이에 대해서는 『조선구전문학개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6) 참조.

인정 여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수령영생문학’이나 ‘단군문학’, ‘선군혁명문학’에 대해서도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분명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다.

#### (8) 북한문학의 대표성 문제

북한문학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문학작품이나 대표성으로 인정하는 문학작품과 문학성을 기준으로 한 문학작품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남북한이 공통으로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평가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은 문학적 업적과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의 예술관과 문학관이 달라 동일한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차이는 당연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가치 평가의 기준과 원리, 그리고 그 속에서 통일문학사 기술을 위한 논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문학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남북이 공통으로 높이 평가하는 인물인 김소월, 박태원, 채만식 등의 경우에도 평가의 가치와 척도가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문학의 영역만이 아니다. 고전문학의 인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sup>42)</sup>

#### (9) 항일혁명 문학에 대한 평가

항일혁명 문학에 대한 평가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피바다」에

42) 북한문학 연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박태상, 전영선 등의 연구가 있었다. 2004년 12월 11일에 있었던 한국문학회 2004 동계 학술대회에서 북한의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북한문학 연구에서도 활발하지 못하였던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소설과 연극 등의 여러 「피바다」에 대한 異本 연구를 비롯하여 몇 편의 연구가 있었지만 항일혁명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항일혁명 문학에 대한 논의는 북한문학의 연구 일환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항일혁명」을 그 자체로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보지 말고, 광범위한 민족문학에 대한 모색으로서 재만문학의 영역으로 항일의 이념을 지닌 광범위한 민족주의적인 작품의 한 가지로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0) 최근 북한 문학에 대한 평가

문학과 정치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1980, 1990년대 북한문학계가 일정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김재용은 1990년대 북한문학의 변화를 다섯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수령형상화」 작품 창작과 함께 김정일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이 활발해졌다는 점, 둘째,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관련된 주제로서 공산주의 건설을 주제로 한 작품의 지속적인 창작, 셋째, 1992년 창작된 리유근의 「홍경래」와 같은 과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의 창작, 넷째, 사회주의 현실 주제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 세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의 증대, 다섯째, 조국 통일의 주제로서 아산가족의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 창작 등이다. 북한문학의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제기된 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작품의 주제인 「도시와 농촌의 사회문화적 격차」, 「세대간의 갈등」, 「남녀간의 애정」 등의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주제접근이라는 명백한 한계 속에서 전개된 것이지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43)</sup>

박태상은 1990년대 소설 문학의 특성을 「김정일 형상창조」, 「농촌에서의 삶의 가치 고양」, 「애정모티프의 대담한 등장」, 「과학기술문제와

4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281~288쪽.

과학환상소설의 창조’, ‘통일염원의 문학’으로 규정하였다.<sup>44)</sup> 김한식은 1980년 이후의 북한 소설의 전개를 ‘현실생활을 창작 공간으로 회복’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가 문학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45)</sup>

북한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는 소재의 다양화라는 점이다. 이전의 혁명문예에서 다루지 못한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표현에서 자유스러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남녀의 애정 문제를 나타내면서 이전과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본주의 문화의 도입이다. 북한에서 금기시되던 전자 음악이 도입되었으며, 혁명가요 중심에서 생활감정을 노래한 대중가요가 불려진다는 것이다. 넷째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문학 자체를 새롭게 인식해야 함은 물론 남북 문학사 서술에서도 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북한문학을 통해 정치체제의 변화를 읽으려 하며, 북한문학의 방향을 탈정치화 속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최근의 북한문학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변화 가능성은 염두에 둔 접근이며, 이를 통해 문학이 본래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김한식이 언급한 창작 공간으로서 ‘현실생활의 회복’이나 박태상의 ‘애정모티프의 대담한 등장’이라는 표현 등은 분명히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였지만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북한문학을 북한의 내재적 원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읽기보다는 전근대적인 인식구조에서 근대로 진행되려는 초기

44)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240~251쪽.

45) 김한식, “북한소설에서 현실모순의 형상화 문제”,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 문학사』(서울: 나남출판, 1995), 469쪽.

모습을 찾는, 우리 문학의 발전 과정이 근대의식 속에서 자아의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북한문학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북한문학 연구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문학의 성과를 객관화하여 남북한 통합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다. 일찍부터 남북한 통합 문학사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학 연구는 남한 문학사의 부분을 보충하거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우열과 열등 내지 전체와 부분으로서 남북한의 문학에 대해 접근하였다. 북한문학 연구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문학관과 예술관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외형적 다양성을 근거로 한 남한 문학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자료의 제한적 접근이라는 한계로 인해 북한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자료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접근으로는 특정 시기와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한 ‘기획적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경향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는 전면적인 연구사를 기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문학 연구는 통일문학사 서술이나 북한문학 연구의 내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서 북한문학 연구가 문학의 내적 발전원리 속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정치사회적 상황,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부침을 반복하여 왔

다. ‘북한문학’이라는 연구 범위 역시 현대문학 연구의 한 분야이거나 현대 문학의 확장된 영역으로 한번쯤 거쳐 가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문학 연구가 대중적 관심에 따라 확대되었다가 축소되는 것도 북한문학 연구가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하기는 귀찮은 분야로 ‘하면 좋은’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학 연구는 그 동안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면서 문학사의 빈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아쉬운 점은 북한문학 연구가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후속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문학 논의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편의에 의해 대상으로서 선택된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북한문학 연구가 북한 사회 변화와 북한문학 연구 사이의 시간 차이를 상당히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연구 주제에 있어 현재적 의미와 맥락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방 공간에 대한 탐구, 리얼리즘을 통한 통합 가능성의 모색, 민족문학적 접근, 역사주의적 접근의 중요성만이 강조되는 것도 북한문학 연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문학 연구는 북한문학의 특성상 연구자들로 하여금 번거로운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끊임없이 읽어내야 하는 부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북한문학 연구에 있어서 적당한 타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문학관과 예술관이 기본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에 정치사회적 의미 분석 없이는 정당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한다.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문학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특정시기의 한두 작품으로 북한문학을 일방적인 경향으로 규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비정치적인 문학 작품을 예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도 지향해야 할 바이다. 북한 사회의 내

면적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 작품의 소재에 집착하게 된다면 본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문학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문학 연구자들과 북한 연구자들의 소통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문학 연구는 북한 연구라는 학제간 연구의 장에서 상호 작용의 과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문학 연구가 문학전공자들의 정치적 분석 작업과 북한 전공자들의 문학적 탐구 작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문학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합 문학사 서술의 과정은 남북한 문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전향적 자세로 접근할 때 보다 큰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과학원출판사,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과 해방후 문학』(평양: 과학원출판사, 1961).
- 국토통일원, 『북한의 문화예술』(서울: 국토통일원, 1981).
- 권영민 편, 『북한의 문학』(서울: 을유문화사, 1989).
- 김경숙, 『북한현대시사』(서울: 태학사, 2004).
-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서울: 문학과 비평사, 1990).
-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화 혁명적 대작 장편 창작방법 논쟁—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설주의의 논쟁·3”, 『한길문학』(1992. 여름).
- \_\_\_\_\_, “전후문학의 도식주의의 논쟁—1950년대 북한 문예비평상의 쟁점”, 『문학과논리』, 3(1993. 6).
- \_\_\_\_\_, “김정일 시대의 주체문학론 비판”, 『북한연구』(서울: 대류연구소, 1994 겨울호).
- 김성수,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 3집(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0. 12).
- \_\_\_\_\_,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서울: 책세상, 2001).

- 김재용, “김일성 사후의 북한문학—90년대 중반 북한소설의 새로운 경향과 그 의미”, 『문예중앙』(1996, 여름).
- \_\_\_\_\_, 『민족문학 운동의 역사와 이론2』(서울: 한길사, 1996).
- \_\_\_\_\_,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사, 2000).
-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룬문”(1982. 3. 31).
- \_\_\_\_\_, “당에 끝없이 충직한 문예전사로 준비하자”(1968. 10. 8).
- \_\_\_\_\_,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67. 5. 30).
- \_\_\_\_\_,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1967. 8. 16).
- \_\_\_\_\_,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1966. 2. 7).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1967. 7. 3).
- \_\_\_\_\_, “혁명적인 문학예술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1964. 12. 10).
-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서울: 청동거울, 1999).
- \_\_\_\_\_, 『북한문학의 이해2』(서울: 청동거울, 2002).
- 김종희, “해방후 북한문학의 전개와 실증적 연구방향”,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서울: 청동거울, 1999).
- 김한식, “북한소설에서 현실모순의 형상화 문제”,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서울: 나남출판, 1995).
- 남송우,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시문학을 중심으로”, 『통일대비 한국문학의 과제2』(한국문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 연구』(서울: 역락, 2004).
-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12).
- 류 만, 『조선문학사9』(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6).
- 박상천, “북한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 제4집(서울: 한국민족학회, 2000. 2).
- \_\_\_\_\_, “김정일시대의 시문학”, 『통일논총』, 17호(1999).
- 박상천, “통일문학 연구의 경과”, 『민족학연구』, 제4집(평양: 한국민족학회, 2000).
-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태상 저 『북한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 박태상, “북한문학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9).

- \_\_\_\_\_, 『북한문학의 동향』(서울: 깊은샘, 2002).
- \_\_\_\_\_, 『북한문학의 현상』(서울: 깊은샘, 1999).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구전문학개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6).
-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서울: 새문사, 1996).
-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고려원, 1990).
- 설성경·김영민, “통일문화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연구”, 『통일연구』, 제2권 1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 신형기, 『민족이야기를 넘어서』(서울: 삼인, 2003).
- \_\_\_\_\_, 『북한 소설의 이해』(실천문화사, 1996).
- 신형기·김화영, “‘천리마대고조기’의 북한문학”, 『경성대 논문집』(1998. 2).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서울: 평민사, 2000).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 양지연, “유일지도체계의 성립과 문학예술의 역할—1967년 북한문학예술계의 반종파 투쟁을 중심으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우문숙, “북한의 ‘선군혁명문학’을 통해 본 선군정치의 체제유지 기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윤재근·박상진, 『북한의 현대문화Ⅱ』(서울: 고려원, 1990).
- 이명재 편, 『북한문화사전』(서울: 국학자료원, 1995).
- \_\_\_\_\_, 편, 『북한문화의 이념과 실체』(서울: 국학자료원, 1998).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형기·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화』(서울: 고려원, 1990).
- 전영선, “북한에서의 고전소설 수용연구”, 『북한연구학회보』, 4권 2호(서울: 북한연구학회, 2000).
- \_\_\_\_\_, 『북한을 움직이는 문학예술인들』(서울: 역락, 2004).
- \_\_\_\_\_, 『북한의 문학과 예술』(서울: 역락, 2004).
- 최명,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화사』(서울: 나남출판, 1995).
-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서울: 동국대출판부, 2003).
- 홍창수, “남한문화사 서술양상과 북한문화 연구동향”, 최동호 편, 『남북한현대문화사』(서울: 나남출판사, 1995).

## Abstract

# The Issues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Young Sun Jeon(Research Professor,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literature has rarely been a subject for study due to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cold war since the division.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started in the 1980s and got an important momentum after lifting of the ban on the politically converted writers in 1988. Since then detent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done much for a wider range of sympathy on the necessity to activate North Korean studies. Nevertheless,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have not developed into a concrete field of objective and systematic study.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rather, repeat temporal ups and down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This is partly because access to data has not been easy and also because the literature in North Korea has contained inordinate political meanings.

It was after 2000 when objective approaches to North Korean literature appeared. Before then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had not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time of writing and that of analysis. It was not until late in the 1990s that the studies started to deal with the literature of 1970s and today.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have been underdeveloped is that the researchers are incessantly required to catch political situations and meanings. Catching the meanings related the political situation has been an essential matter which can not be solved by rough compromise. Since the views of art and literature in North Korea are closely related to politics,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la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without analyzing its socio-political meanings.

In order to activate the studies on North Korean literature, researchers should renounce their self-centered understanding and attempt to take reciprocal attitudes.

Key Words: North Korean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Unified history of literature, History of Chosun literature, Issues of studies on literature, Tasks for studies on literature

## 전영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1991)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으로 박사학위(2001)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북한을 움직이는 문학예술 인들』(2004), 『북한의 문학과 예술』(2004), 『고전소설의 역사적 전개와 남북한의 춘향전』(2003),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2002), “김정일 시대 사회패러다임으로서 종자론 연구”(2003) 등이 있다.